

2012. 1. 2 제278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동향

2012. 1. 2 제278호

산업·경제

1. '사회편입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파리)
2. 창업의 대안으로 성공적인 사업인수를 도와주는 인터넷사이트 개설과 안내서 발간 (독일)

건강·복지

3. 1년에 한 번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휴가여행 지원 (영국 리버풀市)
4. '도서관 지킴이'를 선발해 지역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투입 (런던)
(토막기사)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및 대책 수립 추진 (런던)
(토막기사)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 실적평가 실시 (도쿄)
(토막기사) '제3차 평생학습 기본구상' 발표 (일본 요코하마市)
(토막기사)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건립 (중국 선전시)

도시환경

- (토막기사) 'Love Your Block'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제안한 도시경관 조성사업 지원 (뉴욕)

(토막기사) 애완동물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는 애완동물 전용공원 확충
(미국)

도시교통

5. 자전거 전용도로를 왕복차로로 확장 (캐나다 밴쿠버市)

(토막기사) 자전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자전거를 올바르게 타는 법’
가이드북 배포 (일본 요코하마市)

(토막기사)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대기업 후원현황 분석 후 효과적인 운영방
안 모색 (런던)

도시계획·주택

6. 사회·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주택정책 발표 (도쿄)

7. 새로운 비전계획 ‘2020년의 도쿄’ 수립 (도쿄)

(토막기사) 항공권처럼 아파트임대료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결정하는 시스템
도입 (미국)

산 업 · 경 제

1. '사회편입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파리)

- 프랑스의 적극적 연대소득(Revenu de solidarité active) 제도 및 사회편입 정책 개혁을 위해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2008-1249법에 따르면, 각 道(Département)는 매년 사회편입을 위한 道 프로그램을 심의해야 함. 파리市는 행정단위상 道이기도 해 이를 시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통합하는 전략을 수립함. 이것이 '2011~2014 사회편입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임.
 - 적극적 연대소득 제도의 목적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수입을 보장해주고 직업활동을 장려하며 소외에 적극 대처하는 것으로, 이 제도로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대폭 간소화됨. 市는 2011~2014 사회편입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2011년과 2012년에 9100만 유로(약 1380억 원)를 투입할 예정임. 이 중 6100만 유로(약 924억 원)는 적극적 연대소득 수혜자의 직업 및 사회편입을 위해 쓸 예정임. 2010년에는 2만 5000명의 파리시민이 道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를 얻음.
 - 파리에 경제활동 수입이 없는 7만 6000명의 적극적 연대소득 기초 수혜자와 2만 5000명의 적극적 연대소득 경제활동 수혜자, 11만 2000명의 구직자가 있음. 현재 파리市의 실업률은 8.2%이고 프랑스 실업률은 9.1%임. 파리의 적극적 연대소득 예산은 연간 3억 유로(약 4550억 원)이고,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한 국가 채무는 1억 7800만 유로(약 2700억 원)임.
 - 2011~2014 사회편입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업과 구직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고용 촉진 활동의 효율성을 높임.
- 우선 관심 대상자(여성, 청년, 노인, 구직 곤란자, 예술가, 저소득층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 구직자가 구인박람회 등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개발해 구직자가 노동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줌.
- 필요하지만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직업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
- 사회편입 서비스센터 활동범위를 파리 전체로 넓힘으로써 적극적 연대소득 수혜자를 위한 단일 사회편입 서비스를 개발함.
- 관련 분야 상시 실무위원회에 사용자가 참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함.

(www.paris.fr/accueil/emploi-recrutement/un-nouveau-programme-departemental-pour-l-insertion-et-pour-l-emploi-pdie/rub_9655_actu_108561_port_23780)

([www.caf.fr/web/WebCnaf.nsf/090ba6646193ccc8c125684f005898f3/69586b9f8ed37279c12576310048137f/\\$FILE/90%20-%20ESSENTIEL%20-%20RSA.pdf](http://www.caf.fr/web/WebCnaf.nsf/090ba6646193ccc8c125684f005898f3/69586b9f8ed37279c12576310048137f/$FILE/90%20-%20ESSENTIEL%20-%20RSA.pdf))

(www.rsa-revenu-de-solidarite-active.com/calcul-rsa/58-allocataires-rsa.html)

2. 창업의 대안으로 성공적인 사업인수를 도와주는 인터넷사이트 개설과 안내서 발간 (독일)

- 독일은 생계형 창업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창업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인수에 대한 지원에 착수함. 창업은 시작부터 사업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반면 시장 개척, 장기적으로 좋은 평판 쌓기 등의 어려운 과제가 있음. 이에 반해 사업인수는 사업자가 이미 어

느 정도 시장기반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성공적인 사업인수는 기존 사업체의 존속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큰 의미를 가지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새신의 가능성도 열어둠. 그러나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이 필요하고, 상당부분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함.

- 독일연방 경제기술부는 중소기업 지원 은행, 각 자치주의 상공회의소, 경제 유관단체, 자영업 관련 기관과 함께 2006년부터 사업인수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사이트(www.nexxt-change.org)를 운영하고 있음. 무료 온라인 기업 교환시장인 이 사이트는 기존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체를 더 잘 운영해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 사업 또는 창업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기존 사업체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인터넷사이트에는 사업 인수자를 찾는 구인 페이지, 인수 사업체를 찾는 매입 페이지, 광고 페이지 외에도 자금 마련, 정부 지원프로그램 안내, 인수인계 계획 도우미 등의 정보 안내와 상담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음.
- 이밖에도 독일연방 경제기술부는 성공적인 사업체 인수인계를 위한 안내서도 발간해 인수자와 인계자의 입장에서 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함. 그리고 과도기 상황에서의 사업체 운영을 위한 조언, 기업가치 평가와 인수금액 산정을 위한 조언, 법 및 세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도 제공함.
 - 각 자치주의 상공회의소도 사업체 인수인계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워크숍을 개최함. 매년 가을에는 사업체의 인수자를 찾는 사람들과 사업 및 창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간의 만남의 장도 마련함.

(www.berlin.de/ba-charlottenburg-wilmersdorf/org/wiberat/unternehmen_snachfolge.html)

(www.nexxt-change.org/)

(www.existenzgruender.de/imperia/md/content/pdf/publikationen/broschueren/unternehmensnachfolge.pdf)

건강 · 복지

3. 1년에 한 번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휴가여행 지원 (영국 리버풀市)

○ 영국 리버풀市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1년에 한 번 자유롭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함. 市는 市 홈페이지에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과 이들을 돌봐줄 후견인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자세한 신청안내문을 올림. 市는 휴가를 가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 휴가를 지원할 방침임.

- 市는 맞춤형 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휴가방식을 소개함. 1박 2일 휴가, 휴가를 간 장애아동의 빈집을 방문해 동·식물을 돌봐주는 서비스, 자유로운 휴가 후 비용 정산,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건립된 수련원에서의 휴가, 지정업체에서 제공하는 휴가 서비스, 캠핑카를 이용한 휴가, 자원봉사 휴가, 보육 전문가가 함께 하는 레크리에이션 캠프, 장애인이 여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는 캠프 등임.

· 지원 대상은 1년에 한 번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가족, 전문 도우

미로서 市 복지지원 창구인 Careline을 통해 신청함. 중증 장애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市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함. 해당 시설로는 Millies 스포츠센터, Prescot Drive 내 거주시설 등이 있음.

- 휴가여행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6명이 한 팀이 되어 동물원으로 소풍을 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 제작된 차량을 타고 동물을 구경한 뒤 산타 할아버지에게 각자의 소원을 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루 소풍을 다녀옴.



【6명이 한 팀이 되어 리버풀에 있는 체스터 동물원으로 소풍을 간 모습】

(liverpool.gov.uk/news/details.aspx?id=209279)

(www.lcvs.org.uk/res/media/pdf/AHDCnewsletter5thedition2Mb.pdf)

4. ‘도서관 지킴이’를 선발해 지역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투입 (런던)

- 런던市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인 ‘런던, 우리는 한 팀’(Team London) 사업의 일환으로 ‘Love Libraries, Library Champions’ 운동을 벌임. 총

10만 파운드(약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서관 지킴이(Library Champions) 2000명을 선발해 지역도서관을 홍보하고 활성화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임.

- 2012년 상반기 동안 최소 10개 자치구에서 활동할 도서관 지킴이들은 시민을 대상으로 읽기 교육, 독서토론모임 조직 및 운영, 온라인을 통한 구직·직업훈련 등의 지원사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임. 지금까지 도서관에서는 소수의 직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 지킴이를 적극 투입할 계획임.
 - 머튼(Merton)區 사례를 보면, 자원봉사자가 도서관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됨. 구내 자원봉사센터와 도서관을 연계한 결과 도서관 자원봉사자가 350여 명에 달하고 도서관 이용률이 15% 증가하였으며, 지난 3년간 대출 도서가 20만 권에 달함.

- 도서관 지킴이 운동은 市뿐 아니라 런던 도서관협의회, 독서운동협회 등 다양한 독서 및 여가활동 관련 조직이 함께 함. 이는 지역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줌. 도서관 지킴이 운동이 기존 도서관 직원을 줄이고 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읽기 지도, 문맹 퇴치, 독서토론 등을 확대하는 데 주력함.
 -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어린이 구연동화 자원봉사가 인기를 끌고 있음.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등 3개 자치구에서는 3~5세 유아들의 글자 익히기 프로그램, 유아의 가정학습을 위한 부모 대

상 교육 등이 인기를 끌고 있음. 자원봉사를 통해 보람과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참가자 등도 늘고 있어 도서관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자, 도서관 이용자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운동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런던市 내 공공도서관은 총 380개로서 세계 어느 도시보다 많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음. 2012년에는 40개의 도서관이 새로 조성됨. 市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인 '런던, 우리는 한 팀' 사업을 위해 외부로부터 자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로이벤 재단(Reuben Foundation)으로부터 200만 파운드(약 36억 원)를 기부 받음.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london-launches-team-london-love-libraries-scheme)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및 대책 수립 추진 (런던)

- 런던시의회 정신건강서비스 위원회는 시민의 정신건강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함. 현재 런던에는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시의회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펀드를 조성하자는 안도 함께 논의함. 시의회가 주로 논의한 내용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문제와 앞으로의 방향, 현 정부의 긴축재정이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 새로운 정신건강 관련 전략과 대책이 주는 영향 등임.
- 市는 정신건강 서비스와 관련해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함. 이를 위해 향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보고서를 출간할 예정임.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london_assembly/what-challenges-are-londons-mental-health-services-facing)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 실적평가 실시 (도쿄)

- 도쿄都는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2010~2014년도)의 2010년도(2010. 4~2011. 3) 실적을 2011년 12월 16일에 발표함. 都는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에 따라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2010~2014년도)을 2010년 4월 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음. 후기 도쿄都 행동계획은 2005년 4월 수립한 전기 계획(2005~2009년도)의 성과와 지난 5년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수립됨. 이번 실적평가 결과 어린이 놀이터 정비, 통상보육사업 등 주요 사업이 2014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행동계획은 ① 지역에서 안심하고 육아가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②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 실현, ③ 차세대를 담당할 아이들이 씩씩하게 성장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④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나 가정의 자립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⑤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음.
- 후기 계획에서는 계획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아이 입장에서의 관점’을 새로 추가함. 이에 따라 지원을 받는 당사자(아동 및 청소년, 부모)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함.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 2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6~8명씩 그룹을 지어 의견을 청취함. 주로 도쿄가 좋거나 싫은 이유, 커서 되고 싶은 어른의 상, 어른이 되어서도 도쿄에 살고 싶은지 여부, 평소에 자주 노는 장소 등을 조사함.
 - 영·유아가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보육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영·유아의 보호자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5~8명 단위로 구성된 그룹 인터뷰도 실시함. 이번 조사에서는 육아에 보람이나 부담을 느끼는지, 육아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등과 육아환경의 만족도, 10년 후 바라는 점, 일시보육 및 아동가정지원센터 등의 시설이용 정도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함.
- 都는 앞으로도 정책의 대상이 되는 아이나 부모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해

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임. 효과적인 의견청취를 위해 전문가 양성 등 기술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가질 예정임.

(www.metro.tokyo.jp/INET/CHOUSA/2011/12/60lcg100.htm)

(www.metro.tokyo.jp/INET/CHOUSA/2011/12/DATA/60lcg100.pdf)

(www.metro.tokyo.jp/INET/CHOUSA/2011/12/DATA/60lcg102.pdf)

‘제3차 평생학습 기본구상’ 발표 (일본 요코하마市)

- 일본 요코하마市는 도시를 둘러싼 여건 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의 역할도 변화하게 되어 2011년 11월 ‘제3차 요코하마 평생학습 기본구상’(계획기간 10년)을 새로이 수립함. 市는 1988년 5월 처음으로 ‘요코하마 평생학습 기본구상’을 수립하였으며, 1999년 11월 ‘제2차 요코하마 평생학습 기본구상’을 수립해 평생학습 관련 대책을 시행해 왔음.
 - 제3차 기본구상은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 개개인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계하고 서로 의지하는 풍요로운 공생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 市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3대 기본방침도 수립함.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힘을 기름: 평생학습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활기차고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키워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힘, 정보를 활용하는 힘,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며 풍부하게 살아가는 힘 등을 기름.
 - ② 힘을 활용함: 평생학습을 통해 익힌 힘을 지역사회를 위해 살려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 배움을 토대로 자원봉사활동, 지역 문화의 계승·창조 등을 지원함.
 - ③ 힘을 모음: 하나하나의 힘을 모아 더 큰 힘을 만들어 보다 풍부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 사회교육시설 간 네트워크 형성, 대학·민간기업·NPO와의 연계 강화 등을 지원함.

(www.city.yokohama.lg.jp/kyoiku/gakusyu/concept3/)

(www.city.yokohama.lg.jp/kyoiku/gakusyu/concept3/pdf/dai3jikhonkousou.pdf)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건립 (중국 선전시)

- 중국 선전(深圳)시는 3~15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체험 테마파크를 건립함. 60여 개의 체험관에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으며, 평소 접하기 힘든 직업분야도 생생하게 보고 배울 수 있어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현재 이곳에서는 현존하는 직종의 80% 정도를 체험할 수 있음.

· 전통 수공예관에서는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연, 설탕공예품, 그림자 인형 등을 만드는 시범을 보이고 어린이들에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줌. 방직체험관에서는 실을 뽑고 천을 염색하고 옷을 재봉하는 전 과정을 보여 줌. 또한 학교에서는 배우기 힘든 안전교육도 받을 수 있음. 체험관에서는 모형이 아닌 실제 설비와 재료도 많이 갖추고 있어 현실감이 매우 높음.

- 직업체험관은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과 같이 공익시설로 민간시설과 달리 진로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직접 만져보고 느끼고 생각해보는 체험활동을 통해 관심 있는 직업세계를 더욱 잘 이해하고 다른 직업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의 직업관과 진로교육에 큰 도움이 됨.

· 현재 중국에는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등에 50여 개의 어린이 직업체험관이 있음.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는 막대한 유동인구를 형성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 특히 어린이 중심의 상권 형성에 효과적임. 선전시의 어린이 직업체험관의 연간 입장객이 12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http://roll.sohu.com/20111125/n326971392.shtml>)

(<http://news.qinbei.com/20111128/240564.html>)

도 시 환 경

‘Love Your Block’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제안한 도시경관 조성 사업 지원 (뉴욕)

- 뉴욕市는 시의회, 자원봉사그룹과 협력해 지역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블록 단위) 경관을 개선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Love Your Block’ 프로그램을 시행함. 이 프로그램은 ① 주민에게 거주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북돋워주며, ② 해당 블록의 경관개선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市 교통국과 공원 및 여가국 등 관련 부서는 조경수 식재, 자전거 거치대 설치, 화단 조성 등 경관 개선·보수·조성 등에 관한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市는 이러한 도시경관 조성사업이 시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로부터 경관 조성에 관한 제안을 받고 심사를 거쳐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지급함. 우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그룹은 해당 지역(블록)의 경관 조성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개성 있는 주거지를 조성할 수 있음.
- 2011년도에는 50개의 시민그룹이 보조금을 받음. 이들은 ① 해당 블록의 쓰레기를 치우고, ②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조경수를 식재하며, ③ 거리의 낙서를 없애고 잘못된 도로표지판이나 고장 난 가로시설물을 고치는 활동을 펼침.

(www.nycservice.org/initiatives/index.php?initiative_id=5)

애완동물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는 애완동물 전용공원 확충 (미국)

- 미국에서는 애완동물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애완동물 전용공원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2010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전체 공원 수가 3% 증가한 데 비해 애완동물 전용공원은 34% 증가함.

-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위 100개 도시에 총 2만 2493개의 공원이 있으며 이 중에는 569개의 애완동물 전용공원과 419개의 대중골프장, 9633개의 야구장이 포함됨. 특히 오리건주 포틀랜드市에는 인구 10만 명당 5.7개의 애완동물 전용공원이 있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음.
- 애완동물 전용공원의 확충 및 인기 상승은 자녀가 없이 애완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상위 100개 도시 내 가족 분포를 분석해보면, 자녀가 있는 가구 수는 3800만 가구인데 비해 애완견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 수는 4300만 가구로 나타남. 애완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애완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www.usatoday.com/news/nation/story/2011-12-07/dog-parks/51715340/1?loc=interstitialsk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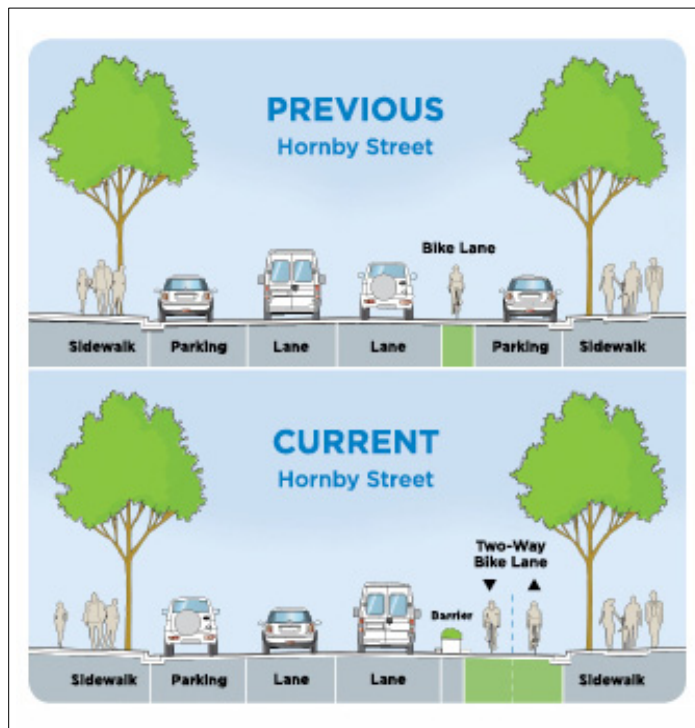
도 시 교 통

5. 자전거 전용도로를 왕복차로로 확장 (캐나다 밴쿠버市)

- 캐나다 밴쿠버市는 자전거로 통근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장함. 양방향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 통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해 실질적인 자전거 통행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자전거도로의 확장을 계기로 자동차 통행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
 - 교차로에 자전거 통행자와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교통신호를 새로 만

들고 자전거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교차로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비보호일 때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신호등을 설치하고, ②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자동차 운전자가 각각의 신호를 알아보기 쉽게 신호등을 설치하며, ③ 교차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식별하기 쉽도록 다른 색으로 칠함.
- 市가 시행 중인 교통법규에 의하면 자전거 통행자도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전거 역시 교통신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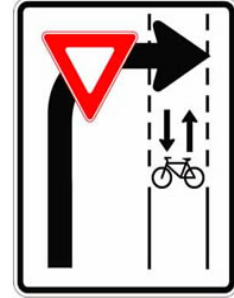
【기존 자전거도로(상)와 새로 조성한 양방향 자전거도로(하)】



【자전거 전용
신호】



【녹색으로 칠한 자전거 전용도로】



【자동차 운전자는
비보호 시 자전거
보호】

(<http://vancouver.ca/engsvcs/transport/cycling/separated/index.htm>)

자전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자전거를 올바르게 타는 법’ 가이드북 배포
(일본 요코하마市)

- 일본 요코하마市는 자전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자전거 판매점, 유료 자전거주차장, 구청 등에 올바르게 자전거를 타는 법을 알기 쉽게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설명한 가이드북을 2011년 12월 22일 배포하기 시작함.
- 市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의 40%는 우산을 쓰면서 운전하거나 휴대전화를 받으면서 운전하는 등 안전운전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 이 용목적별로 살펴보면 24%가 쇼핑 시, 18%가 통근·통학 시에 발생했으며, 연령별로는 15세 이하가 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0대(16%)임.
- 가이드북에서는 ① 보도를 빠른 속도로 통행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엔(약 74만 원) 이하의 벌금을, ② 운전 중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우산을 쓰고 운행할 경우 또는 야간 무(無)점등 운행의 경우 5만 엔(약 74만 원) 이하의 벌금을, ③ 아동을 제외하고 2명 이상 동승하거나 자전거 2대가 나란히 통행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는 경우 2만 엔(약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 자전거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자전거에 아동을 함께 태우는 경우 운전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동승한 아동은 만 5세 이하로 2명까지 가능하며, 반드시 유아전용 시트 및 헬멧을 착용해야 함. 이밖에 가이드북에는 자전거 이용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수칙을 수록한 ‘자전거 매너 업(Up) 카드’를 삽입해 놓았음.

(www.city.yokohama.lg.jp/doro/kotsujitensya/kotsu/bicycle-rule/leaflet.html)

(www.city.yokohama.lg.jp/doro/kotsujitensya/kotsu/bicycle-rule/download/h23leaflet.pdf)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대기업 후원현황 분석 후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 (런던)

- 런던市와 런던교통공사는 에미레이트 항공, 바클레이스 은행 등과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수백 만 파운드의 후원금을 받아 시민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통공사는 시의회에 문제제기를 계기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대기업의 후원 실태 및 효과를 점검한 후 향후 후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함.
- 시의회는 바클레이스 은행이 후원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대여 및 자전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에미레이트 항공이 후원하고 있는 템스강 케이블 카 설치사업 등이 공공부문의 예산부담을 덜고 시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공공사업으로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교통공사가 2009/10년 후원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총 150만 파운드(약 27억 원)이고, 2012년에는 1000만 파운드(약 181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市와 교통공사는 대기업 후원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함. 보고서에서는 후원사를 정할 때 입찰 공고 전에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후원사를 결정하는 등 최대한 투명한 선정 절차를 거쳤다고 밝힘. 2007년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업후원 지침도 준수하고 있으며, 사업목표에 맞게 후원기업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절차를 개발해 운영 중이라고 강조함.

- 교통공사가 2008년부터 3년간 후원대상이 된 3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에는 민간기업의 후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함. 또한 이들 사업의 목표 달성에 적합하면서도 기업도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힘. 시의회도 2011년 12월 8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승인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london_assembly/how-sponsorship-being-used-fund-london%E2%80%99s-transport-services)
(mayor.london.gov.uk/moderngov/mgConvert2PDF.aspx?ID=6654)

도시계획 · 주택

6. 사회·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주택정책 발표 (도쿄)

- 도쿄都 주택정책심의회는 2010년 6월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주택정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 2011년 11월 21일 1년 5개월여 만에 최종 정책보고서를 발표함.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한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주택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임.
- 주택정책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택정책의 4가지 관점은 ① 고도의 안정성을 갖춘 시가지의 구성요소로서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② 기존 주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과 기존 주택의 효율적인 활용 추진, ③ 도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등 시민과의 연계를 통한 시장기능 강화, ④ 다양한 주체 및 부문과의 연계를 통

한 주택안정망 기능 재구축임.

- 위의 4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주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효과적인 시책을 시행해나갈 예정임. 새로운 주택정책의 10가지 시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새로운 주택정책의 10대 시책별 세부 내용】

시책	세부 내용
1. 안전한 주택단지 형성	- 새롭고 실효성 있는 목조주택 밀집지역 정비 개선 - 기존 주택의 내진(耐震) 진단·보수 촉진 - 방재계획, 매뉴얼 확충 - 재해 발생 시에도 에너지가 공급되는 주택단지 조성 -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주택 건설 유도 - 자주적인 마을 만들기 유도 및 양호한 주택단지 조성
2. 지역 생활서비스와의 연계	-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 촉진 및 입주 지원 - 지역 자원봉사자 및 NPO와의 연계 - 육아가정을 위한 주택 공급 촉진 - 육아지원시설 설치 촉진
3. 아파트 관리의 적정화 및 재생	- 아파트 관리의 적정화 - 아파트의 내진(耐震)화 촉진 - 아파트의 재생 유도
4. 공공주택의 효율적 활용	- 노후화된 건물의 내진화 및 재건축 추진 - 공공용지(用地)를 안정적인 도시 만들기에 효율적으로 활용
5. 교외주택단지 등의 활성화	- 교외 주택단지 활성화 - 신도시 등의 재생
6. 기존 주택의 활용 촉진	- 기존 주택의 리폼 및 수리 촉진 - 빈집(空家)의 활용 촉진
7. 시장(市場)의 원칙 만들기	- 주택이력 정보 활용 - 소비자의식 제고 - 임대주택에 대한 원칙 제정
8.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시장 정비	- 양질의 주택시장 유도 - 빈집(空家)의 시장 유통 촉진
9.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	- 공공주택의 주택안정망 기능 강화 - 다양한 주체 및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주택안정망 구축
10. 지진재해로부터의 재건	- 방재계획 재검토 - 피해주택 지원

(www.metro.tokyo.jp/INET/KONDAN/2011/11/401b1100.htm)
(www.metro.tokyo.jp/INET/KONDAN/2011/11/DATA/401b1101.pdf)

7. 새로운 비전계획 '2020년의 도쿄' 수립 (도쿄)

- 도쿄도는 2006년 수립한 都 비전계획인 '10년 후 도쿄'의 이념과 기본방향을 계승하고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동북부 대지진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적절히 대응하며, 일본의 재생과 도쿄의 새로운 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전략 '2020년의 도쿄' 계획을 2011년 12월 22일 수립함.
 - 이번에 수립된 '2020년의 도쿄' 계획은 기존 계획내용 중 방재대책, 에너지정책, 국제경쟁력 향상 분야를 강화한 것으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극복해 일본의 경쟁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이 계획은 '고도의 방재도시를 실현해 도쿄의 안전성을 세계에 표방', '저탄소를 통해 고효율적인 자립·분산형 에너지 사회 창출' 등의 8대 목표와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전략적으로 추진할 12개의 프로젝트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 都는 '2020년의 도쿄' 계획의 각종 정책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실행계획인 '실행프로그램 2012'(2012~2014년도)도 함께 수립해 약 2조 2000억 엔(약 3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10년 후 도쿄' 계획과 '2020년의 도쿄' 계획 목표 비교】

구분	'10년 후 도쿄' 계획 (2007~2016)	'2020년의 도쿄' 계획 (2011~2020)
1	물과 녹지 회랑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거리 도쿄를 부활시킴	고도의 방재도시를 실현해 도쿄의 안전성을 세계에 표방함
2	3개의 순환도로에 의해 도쿄가 다시 태어남	저탄소를 통해 고효율적인 자립·분산형 에너지 사회를 창출함
3	세계에서 가장 환경부하가 적은 도시를 실현함	물과 녹지 회랑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거리 도쿄를 부활시킴
4	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어 수도 도쿄의 신뢰도를 높임	땅, 바다, 하늘을 결합해 도쿄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킴
5	안심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시 모델을 창조함	산업력과 도시의 매력을 제고해 도쿄를 새로운 성장계도에 올려놓음
6	도시의 매력이나 산업력을 통해 도쿄의 영혼을 확립함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시모델을 구축해 세계에 모범을 보임
7	의욕을 가진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창출함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세계로 응비하는 인재를 배출함
8	스포츠를 통해 차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꿈을 줌	누구라도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사회를 만듦

【'2020년의 도쿄' 계획의 8대 목표별 세부목표 및 관련 12개 프로젝트】

8대 목표	세부 목표	12개 프로젝트
<목표 1> 고도의 방재도시를 실현해 도쿄의 안전성을 세계에 표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수송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내진화 완료 - 도쿄궤도의 독자적인 내진마크 표시제도를 통한 내진화 촉진 - 목조건물 밀집지역 내 주요 도시계획도로 정비 완료 - '방재 근린조직' 구축 - 귀가 곤란자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화 100% 프로젝트 - 목조건물 밀집지역 불연화(不燃化) 10년 프로젝트 - 방재공조 프로젝트
<목표 2> 저탄소를 통해 고효율적인 자립·분산형 에너지 사회를 창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kW급의 고효율 천연가스 발전소 설치 - Co-generation 시스템을 통해 50만 kW 발전 - 주택 태양광으로 90만kW 발전 - Smart Grid 실현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공조 프로젝트 - 도쿄산 전력 300만 kW 창출 프로젝트 -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8대 목표	세부 목표	12개 프로젝트
<p><목표 3> 물과 녹지 회랑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거리 도교를 부활시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까지 1000ha 녹지 창출, 가로수 100만 그루 달성 - 새로운 도시공원 433ha 정비 - 5만 그루의 대경목(大徑木) 재생대작전 전개 - 물과 녹지의 네트워크화 - 도교 스카이트리(Skytree)를 기폭제로 한 '스미다江 르네상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과 녹지 네트워크 실현 프로젝트
<p><목표 4> 땅, 바다, 하늘을 결합해 도교의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순환도로의 정비율 92% 달성 - 23區 지역순환도로 및 다마(多摩) 남북도로 등 간선도로의 개략적인 완성 - 하네다공항의 낮 시간대 국제선 출·도착건수 확대 - 케이힌항(京浜港)이 아시아 허브항으로 지위 확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해·공 교통네트워크 강화 프로젝트
<p><목표 5> 산업력과 도시의 매력을 제고해 도교를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올려놓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특구제도로 외국기업을 유치해 아시아 헤드쿼터 실현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이 가진 높은 기술력 활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의 헤드쿼터 프로젝트
<p><목표 6>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시모델을 구축해 세계에 모범을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만 명분의 보육서비스 창출 - Silver Hello Work 창설 - 고령자 돌봄 네트워크를 전 구시정촌에 구축 - 장애인 일자리 3만 개 확충 - 2014년 말까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320개로 늘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력 강화 프로젝트 - 생애 현역 프로젝트
<p><목표 7>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세계로 웅비하는 인재를 배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재생 도교 원탁회의'에서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 - 1만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유학 지원 -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보다 세밀한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여운 아이에게 여행을 시켜주는 프로젝트
<p><목표 8> 누구라도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사회를 만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올림픽 개최 실현 - 神宮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스포츠클러스터 정비 - 국제적인 스포츠대회 연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스포츠클러스터 프로젝트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1/12/70lcm101.htm)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1/12/DATA/70lcm101.pdf)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1/12/DATA/70lcm154.pdf)

항공권처럼 아파트임대료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결정하는 시스템 도입 (미국)

- 미국의 대규모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을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결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함. 임대사업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임대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이 프로그램은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호텔 숙박비, 항공료 등이 결정됨.

- 이 프로그램은 경쟁 임대사업자의 가격동향, 아파트 수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아파트 임대료가 자동적으로 변동되도록 설계됨. Equality Residential 이라는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보다 많은 입주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어 전체 수입이 3~7% 정도 증가했다고 밝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용은 아파트 1채당 한 달 2달러(약 2300원)임.
- 이 프로그램은 임대사업자에게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고 임차인에게는 싼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비수기 때나 수요가 높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반시세보다 싼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하지만 임대료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결정되면 임대사업자가 가격폭등의 원인과 책임을 컴퓨터시스템에 돌릴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www.nytimes.com/2011/11/30/realestate/commercial/landlords-use-computers-to-arrive-at-the-right-rental-fee.html?_r=2&adxnnl=1&adxn=&adxnnlx=1324526611-

Q6TWnlSvbS9keQxxWgnntw)